

## 마약에 중독된 두 살 아이



▲ 사진=shutterstock

2살짜리 남자 아이가 마약 금단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심하게 경기를 하는 아이를 안은 한 남자가 아르헨티나 산타페의 한 병원을 찾았다. 남자는 그 아이의 삼촌이었다. 병원은 즉시 아이를 입원시키고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의 소변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아이는 코카인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었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 금단증후군 판정을 내렸다. 아이의 경기는 마약을 끊는 바람에 생긴 증상이라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아이의 삼촌에게 알리자 그는 조카를 버려둔 채 줄행랑을 쳤다. 그리고 이튿날 아이의 엄마라는 여자가 병원을 찾아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러자 병원 측은 경찰에 아이를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병원 측은 "금단증후군은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아이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를 찾아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2살 아이가 코카인에 중독된 이유는 엄마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코카인 중독자인 엄마가 모유를 수유하면서 아들까지 '중독자'로 전락시켰을 거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신경 손상이 많이 걱정된다"면서 신경손상이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엄마를 범죄용의자로 보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아직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날마다 산꼭대기 오르는 아이들

베트남 응에안성 므영롱 마을에 사는 쩌어(33)씨는 얼마 전부터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마을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진=tienphong.vn

지난 25일 베트남 언론 '소하'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휴대폰 전파가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날마다 전파 잡히는 높은 산에 오르고 있다.

쩌어 씨는 "4G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고생했다"면서 "찾은 장소는 집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지만, 험난한 산길을 헤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과 조카는 모두 올해 6학년이 되었다. 둘이 한 반이어서 휴대폰 하나로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이들이 사는 마을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휴대폰 전파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퓨터 사용은 물론이고 전파가 안정적이지 않아 휴대폰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쩌어 씨는 아이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산 정상에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 나무와 방수포를 가져다가 작은 판잣집을 지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

이후 여러 마을 사람들도 아이들을 산꼭대기로 보내고 있다. 지금은 10명이 넘는 중, 고등학생들이 이곳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 43센트 덜 낸 남성, 징역 7년형 위기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남성 노숙인이 탄산음료값을 적게 지불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 사진=shutterstock

30대 노숙인인 소블레프스키라는 지난 22일 한 편의점에서 한 병에 2.29달러, 두 병에 3달러에 판매하는 탄산음료 한 병을 구매한 뒤 2달러를 지불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그런데, 편의점 측은 해당 음료 두 병을 3달러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 병만 구매할 경우 2.29달러를 지불해야 했었다며 그를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음료 한 병의 가격은 2.29달러였으나 남성이 낸 돈은 2달러였다. 이 남성은 세금을 포함해 43센트를 적게 지불한 것"이라며 소블레프스키를 체포했다.

소블레프스키는 다음날인 23일 교도소에 수감됐

다. 그는 과거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두 차례의 절도 전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고, 현지 언론은 그가 43센트를 덜 낸 대가로 최대 7년 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삼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사면 위원회 측은 "이 상황은 자원 낭비와도 같다"면서 "문자 그대로 '몇 센트의 문제'다. 개인을 범죄화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재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그가 실수로 '2병에 3달러'만 보고, 1병 가격은 1.5달러가 아닌 2.29달러라는 안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